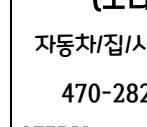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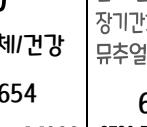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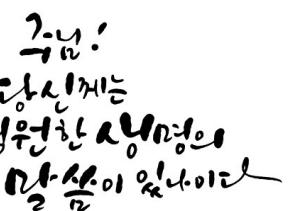


| | | | | | |
|--|--|---|--|---|---|
| 안 그래픽스 인쇄 . 싸인 .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ahngraphix@gmail.com | 구나영 보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새로이 65세 되시는 분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 구나영 아가다 678-665-4228 | 리 장례식장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국내 770-401-7616 귀 넷 770-622-2525 | PIWC Group Agency 자동차 . 집 . 사업체 . 종업원 상해 보험 장인육 베드로 404-644-8658 | SB건축&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철구조물 수리 제작 방성호 크레센시오 678-599-0200 | 오즈 냉동 에어콘 . 히팅 . 냉동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 |
| AAA Insurance 이창호 보험(바오로) 자동차/주택/메디케어 678-910-0884 3483 Satellite Blvd Ste.310 S Duluth, GA 30096 | SMILE 1 DENTAL GROUP 스마일원치과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203, Suwanee, GA 김세희 소화데레사 김상윤 요셉 678-835-9550 | Brighter Smiles 잔스크릭 치과 www.brsmilesmdm.com 470-719-0213 7775 McGinnis Ferry Rd Ste 202, Johns Creek, GA | 김세희 소화데레사 김상윤 요셉 678-835-9550 | 470-719-0213 7775 McGinnis Ferry Rd Ste 202, Johns Creek, GA | |
| ALFONE LIFE FINANCIAL & INSURANCE SERVICE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재만 그雷고리오 404-272-6157 |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SONAMOO 소나무 Auto Repair 3322 Peachtree Industrial Blvd, Duluth, GA 30096 | 리버밴드 오토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Office 770-623-5940 | 미 소 치 과 남상우 시몬 남수진 세실리아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 남상우 시몬 남수진 세실리아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 |
|  미래의 대비와 준비 / 학자금 상속 / 은퇴 / 생명보험 / IRA 장기요양보험 / 오바마의료보험 오선주 데레사 보험 714-579-5422 |  Peachtree Physical Therapy 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정토니 안토니오 |  운동상해(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더 좋은 척추 박찬규 레오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 FARMERS INSURANCE 로렌 배 보험 (모니카) 자동차/집/사업체/건강 470-282-1654 3775 Venture Dr. #M202 | 배용자 루시아 보험금융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보험 유추얼펀드 678-665-5400 3720 Davinci Court, Suite#150 Peachtree Corners, GA 30092 | |
|  CEO/Broker 마크 우 공인부동산 Million Realtors INC 770-885-3276 주택전문/부동산 투자25년 경험 3255 Lawrenceville 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  운동상해(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더 좋은 척추 박찬규 레오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  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 Juliana OH 678-908-4945 |  State Farm™ 자동차, 주택, 생명, 비지니스, 건물, 종업원 상해 보험 송규형 루카 770-361-5655 5224 Buford Hwy NE Ste B Doraville, GA 30340 |  满天紅 명품중식 레스토랑 만 천 홍 신자분 5인이상 10% 할인 우대 770-454-5640 매주 월, 화요일은 쉽니다. | |
|  SINCE 1999 VINEYARD REALTY ·시니어 주택전문 (Seniors Real Estate Specialist) ·사업용 건물 · 토지 조셉 김 678-361-6230 켈리 김 770-634-5646 부동산 전문인 |  Pinehill Realty 조앤리 아네스 부동산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 |  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 Juliana OH 678-908-4945 |  State Farm™ 자동차, 주택, 생명, 비지니스, 건물, 종업원 상해 보험 송규형 루카 770-361-5655 5224 Buford Hwy NE Ste B Doraville, GA 30340 |  满天紅 명품중식 레스토랑 만 천 홍 신자분 5인이상 10% 할인 우대 770-454-5640 매주 월, 화요일은 쉽니다. | |
|  정승욱 미카엘 변호사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입양·클로징·상법·유언 무료상담 770-495-9994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 |  오약국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10820 Abbotts Bridge Rd, #240 오민환 파비아노 |  Fairway Home Loan 최윤석 융자 404-578-1426 3483 Satellite Blvd Ste 201S. Duluth, GA 30096 |  로사리오 평생대학 Weedot! 온전 베네딕토 404-308-0322 서미영 아네스 404-610-0057 |  주보 광고 문의 kmccga.jubo@gmail.com | |
|  교통사고 상해 이종원 미카엘 변호사 무료상담 678-622-8829 jwlee@jwleelaw.com 3483 Satellite Blvd #211S, Duluth (파리바게뜨 맞은편) |  Fairway Home Loan 최윤석 융자 404-578-1426 3483 Satellite Blvd Ste 201S. Duluth, GA 30096 |  *주택용자 *상업용자 최윤석 융자 404-578-1426 3483 Satellite Blvd Ste 201S. Duluth, GA 30096 | | | |
|  GIFT S GOLD · CROSS · REPAIRS ·설자기 · 성상 · 성화 · 목주 · 책 · 신발수선 ·금, 은, 주문제작 · 티-셔츠 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  TOP 조경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남기원 요한 404-966-1919 2547 Old Rockbridge Road, Norcross, GA 30071 | | | | |

순교자 주보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주임신부 구동욱 마카엘 kmccga.pastor@gmail.com | 부주임신부 김성현 라파엘 raphaelkimsj@gmail.com
사목회장 남현석 요셉 Email: josephnam2011@gmail.com Tel: 770.827.9987
전화 770.455.1380 | 팩스 770.455.4262 | Email kmccga.office@gmail.com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URL http://www.kmccga.com

2024년 4월 21일

NO.2248

SCAN ME



부활 제 4주일(성소 주일)

성 가

입당: 55
봉헌: 51,216
성체: 176,186
파견: 130

제 1 독서 사도행전 4,8-12

예수님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 도 구원이 없습니다.

제2독서 요한 1서 3,1-2

우리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요한 10, 11-18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 | |
|---------|---------|
| 청년미사(토) | 5:30pm |
| 아침미사 | 8:00am |
| 교종미사 | 10:00am |
| 영어미사 | 11:45am |

평일미사

| | |
|----------|---------|
| 화요일, 금요일 | 12:00pm |
| 수요일, 목요일 | 7:30pm |
| 월간미사 | |
| 성모신심미사 | 첫째주 토요일 |

- ◆ 고해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 성시간: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 사무실: 일요일 7:00am-3:00pm
월요일 휴무
화-토 10:00am-6:00pm



< 착한 목자 > 윌리엄 다이스 맨테스터 시립 미술관, 영국.
화답송

집 짓는 이 - 들이 내 버린 돌, 모 통이 의 머릿 돌이 되 - 었 - 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요한 10,11-18)

왜! 여기에

배영길 베드로 신부

여기에 왜?
여기서 무얼?
여기서 누구와?

그리 외치며,
하늘만 볼 것인가?

그 답은 분명 알고 있지,
다만, 망설이고 있을 뿐이야.

이제 어찌할 건가?



부활 제4주일의 복음은 ‘착한 목자’에 대한 긴 담화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복음은 “나는 착한 목자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이를 부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나는 착한 목자다.”라는 선언 뒤에는 그 ‘착함’의 이유가 설명되는데,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목숨”(그리스 말 ‘프쉬케’)은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등장할 정도로 강조된 단어인데, ‘숨’ 또는 ‘호흡’을 뜻하며, 인간의 영혼, 생명, 활력 등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자기 숨과 영혼을 내주어 상대를 대신 살게 함을 뜻합니다. 그 와 반대로 ‘목숨을 내놓지 않는 목자’는 “삯꾼”입니다. 삿꾼은 자기가 살고자 양들을 이용하고 불필요해지면 내다 버립니다. 그가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나는 착한 목자다.” 다음에는 ‘앎’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안다’(그리스 말 ‘기노스코’)라는 말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배우는 인지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고, 상대의 본질을 섬세하게 깨달아 이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2독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여 보라고 권고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1독서에는 작은 반전이 등장합니다. 착한 목자는 사랑하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만, 동시에 그 착한 목자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목숨을 내놓는 목자는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시기에 착한 목자 본문을 봉독하는 이유입니다.

양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맡겨진 양들을 하나하나 알고 생명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의 숨이 양들의 숨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이 ‘착함’만이 목자가 가지는 진정한 힘이며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



부르심의 길

성소 담당을 하면서 수도 성소를 갈망하는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름 하느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고 수도 자로 살고자 하는 청년들입니다. 옛날처럼 성소 자의 수가 많지 않고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수도 생활에 관한 강한 원의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2-30대 청년들이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시기이기에 그들의 성소 여정을 진지하게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까지 저의 체험으로 볼 때, 성소 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외적인 측면으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따라 오너라”(마르 1,17)라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성경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면 대부분이 이러한 부르심입니다. 즉 하느님(예수)이 부르심의 주도권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시고, 부름을 받는 이들이 그분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놓아 버리고 따라나서는 것을 보면, 분명 그네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사람들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느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해서, 반드시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마르 10,17-22)

두 번째는, 부르심의 내적인 측면이라 이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1,35-42)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요한의 두 제자에게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내면에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보게 합니다. 즉 하느님은 우리 마음 속의 가장 깊은 갈망을 통해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아주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욕구는 표면적인 것이 있는가하면 어떤 것은 존재의 깊이에 닿아 있습니다. 자신의 심충적 욕구를 깊은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아는 하나의 길입니다.

이와 같이 성소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대와 “내가 무엇을 진정 바라는가?”에 대한 존재적 갈망이 만났을 때 성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수도 성소를 식별할 때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합니다. 나름 부르심의 체험이 있고 수도 자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인격이 요구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수도 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즉 자신의 거룩한 갈망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는 정도나 실현 가능한 성이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거룩한 갈망과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하느님의 계시와 교회의 가르침에 맞는지 식별해야 합니다.

흔히들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인 성소를 수도 자나 사제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적 가치를 살아내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모든 성소는 가는 길은 서로 다를지라도 자신을 벗어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둘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혼인 생활을 하든, 복현 생활을 하든, 사제 생활을 하든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을 극복하여야 합니다.”(2014년 제51차 성소주일 담화에서). 우리가 가톨릭 신자인 까닭은 단지 세례를 받아서라기보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 걸으며, 복음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살아갔을 때, 비로소 신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소는, 그저 수도 회에 입회했다고 해서, 종신 서원을 했다고 해서, 서품을 받았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추구하고 하는 “삶의 방식”이나 “삶의 태도”와 관련을 맺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키워 나가는 것, 나를 내어 주고 함께 하는 것,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것, 그리고 약한 생명들을 더욱 귀하게 끌어안는 것, 내 안의 생명력을 키워 가는 것,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하느님 나라 건설에 투신하는 삶이 바로 성소를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20여 년 전, 예수회 수련원에 입회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수련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저보다 1년 먼저 입회한 형제들이 기상곡으로 부른 노래였습니다. 복도와 계단을 타고 울리는 그 노래 소리는 내 가슴에 서늘하게 내려앉았고 눈 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그 길”입니다.

“당신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말없는 어린양처럼 걸어가신 길, 외로이 걸으신 그 고통의 길. 이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길은 사랑의 길. 부르심의 길 그 은총의 길 당신을 따르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임석수 작사, 작곡)

최성영 요셉, S.J. 신부

<출처 : 가톨릭뉴스 지금 여기(<http://www.catholicnews.co.kr>)>

성소란 무엇인가

인간은 삶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소명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 ‘성소’(聖召)이다.

성소는 넓은 의미의 성소와 좁은 의미로서의 성소로 해석된다. 혼인생활, 직업 등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성소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부모로, 어떤 이는 교육자로, 정치인으로, 군인으로 또 예술가로서의 성소를 받는다. 즉, 모든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주신 고유한 의미가 있다.

좁은 의미에서 성소는 사제 성소나 수도 성소로 규정된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사목하며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축성되며, 수도자는 청빈, 정결,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따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여러분도 완전해야 한다”(마태 5,48)는 말씀을 실천해야한다.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를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부터 성소 생활을 원해야 하며, 두 번째는 교회가 인정하는 장상이 성소를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에서는 하느님으로부터 특정한 방향이나 사명으로 불리는 모든 것을 성소라고 지칭한다. 그런 의

미에서 아브라함과 모세, 예레미야도 성소를 받았다. 이들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을 통해 성소는 개인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예레미야는 주저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탈출 3,11, 예레 1,8)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소명에 책임을 다했다.

하지만 성소를 받았으나 합당하지 않은 이는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을 수 없다.(마태 22,8)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 있어’(마태 25,13)야 한다. 늘 깨어 있으면서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51차 성소주일 담화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성소는 가는 길은 서로 다를지라도 자신을 벗어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삶의 중심에 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혼인 생활을 하든, 봉헌 생활을 하든, 사제 생활을 하든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출처:가톨릭 신문>



마리에타 나눔 구역 모임



교육분과 봉사자 교육



청년미사 후 식사 봉사



김산춘 신부님 서적 판매



김산춘 요한 신부님 특강 <성모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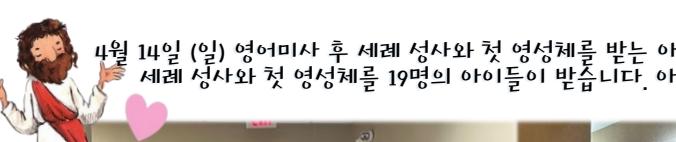


평생대학 일일피정



새신자 환영회

주일학교



첫 영성체반 성당 투어



4월 16일 (화) 금은재 안젤라의 첫영성체 예식이 있었습니다. 타주이사로 별도로 예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금 안젤라 학생 축하합니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 | |
|------------------------|------|--------------|------------|
| 2024년 4월 14일 (부활 제3주일) | | | |
| 교종미사(10:00am)… | 257명 | 주일헌금 | \$4,954.00 |
| 아침미사(8:00am)… | 90명 | 교무금 | \$3,040.00 |
| 영어미사(11:45am)… | 127명 | 감사헌금 | \$.00 |
| 청년미사(5:30pm)… | 61명 | 안젤라 편드 | \$.00 |
| 미사참례 총 | 535명 | 성물방 | \$213.00 |

교무금 명단

| | | | |
|---------|----------|--------|--------|
| 강용조(4) | 김춘자(3) | 서재욱(4) | 조기영(4) |
| 강월석(3) | 박명화(4) | 안용주(4) | 천병호(4) |
| 고영호(4) | 박영권(4~6) | 유성복(4) | 최규복(4) |
| 김루시아(4) | 박찬규(4) | 이홍규(4) | 최인영(4) |
| 김영기(4) | 방남규(4) | 이희순(4) | 태영훈(4) |
| 김영배(4) | 변성주(4) | 임해수(4) | |
| 김용학(3) | 변재중(2~4) | 정예근(4) | |

교무금 월 약정자

| | | | | | | | |
|------|-----|-----|-----|-----|-----|-----|-----|
| 강규상 | 김영홍 | 박근우 | 서미영 | 양경직 | 이경우 | 전근섭 | 한성인 |
| 강성태 | 김원봉 | 박남준 | 서상희 | 양경환 | 이동준 | 전용희 | 한준하 |
| 강용조 | 김일환 | 박남철 | 서용원 | 양국일 | 이복화 | 정승욱 | 한혜선 |
| 고창민 | 김주희 | 박두환 | 서재욱 | 양재준 | 이봉조 | 정용선 | 한민환 |
| 곽홍배 | 김진용 | 박미엘 | 서혁규 | 오경옥 | 이석균 | 정지윤 | 허성일 |
| 김훈 | 김태규 | 박송자 | 석대진 | 오규형 | 이성철 | 정창래 | 홍동욱 |
| 김경숙 | 김향순 | 박영자 | 설재규 | 오상수 | 이수진 | 조보현 | 홍서훈 |
| 김남우 | 김현길 | 박재석 | 성정창 | 오현정 | 이승구 | 조성환 | 홍영기 |
| 김대용 | 김후수 | 박재영 | 소종선 | 왕복실 | 이종길 | 조소준 | |
| 김루시아 | 김홍섭 | 박정미 | 손영덕 | 원동후 | 이주미 | 지승남 | |
| 김연기 | 김희연 | 박종희 | 손칠영 | 원용방 | 이창호 | 차영수 | |
| 김마자 | 나창섭 | 박찬규 | 송경자 | 유경애 | 이준복 | 천병호 | |
| 김마혜 | 남기원 | 박평하 | 송무남 | 유선아 | 이현두 | 최동순 | |
| 김봉섭 | 남상우 | 방영택 | 송용덕 | 유성열 | 이현옥 | 최문석 | |
| 김상준 | 남현석 | 배광우 | 송창률 | 유영한 | 이홍규 | 최문영 | |
| 김성강 | 문명재 | 배정율 | 심충섭 | 유중현 | 이홍철 | 최양숙 | |
| 김세경 | 민병선 | 배정희 | 심호옹 | 윤석진 | 장민재 | 최영갑 | |
| 김영길 | 민수종 | 백현숙 | 윤성진 | 윤성진 | 장해선 | 최옥란 | |
| 김영철 | 민주미 | 서동민 | 안금환 | 이건수 | 전 흥 | 최지남 | |

교무금 새로 약정하신 분

| | | | | |
|-----|------|------|-----|-----|
| 강비호 | 문상국 | 심재숙 | 이세철 | 최문영 |
| 고영호 | 문은숙 | 안용주 | 이은경 | 최승원 |
| 고창민 | 민수종 | 오명혜 | 이 완 | 최제인 |
| 고창영 | 민수종 | 오재찬 | 이창욱 | 최혜민 |
| 김덕자 | 박경미 | 우장희 | 이치선 | 한규빈 |
| 김영배 | 박병호 | 유경애 | 이현옥 | 한규항 |
| 김용준 | 박영희 | 윤지영 | 임용택 | 한찬욱 |
| 김용학 | 박정원 | 이강연 | 임재형 | 한현복 |
| 김홍자 | 방남규 | 배진희 | 이길종 | 허성우 |
| 도한의 | 서영범 | 서영범 | 아동선 | 현무경 |
| 문명재 | 석영길 | 석영길 | 아동현 | 차유경 |
| 문병호 | 스티브조 | 스티브조 | 이수진 | 홍남식 |

나는
자신 목표다나는
자신 목표다

| 2024년 AA 기금 납부 현황 | | | |
|------------------------|--------------|--------------|--------------|
| 2024년 4월 14일 (부활 제3주일) | | | |
| 교구 할당액 | \$ 62,000.00 | 달성률 | 30.78% |
| 약정액 | \$ 20,750.00 | 누계 납부액 | \$ 19,084.00 |
| 금주 납부액 | \$ 1,565.00 | | |

| 2023 AA 기금 납부자 | | | |
|----------------|-----|-----|--|
| 고영호 | 박정애 | 이성철 | |
| 김상국 | 서동민 | 이종길 | |
| 나창섭 | 손칠영 | 장해선 | |
| 박근우 | 오상완 | 정건호 | |
| 박명화 | 윤성진 | 지혜정 | |
| 박연순 | 이동현 | 차영수 | |
| 박영권 | 이상호 | 최제인 | |

| 교무금/ AA 기금 약정/ 봉헌 안내 | | | |
|-------------------------------------|--|--|--|
| • 교무금 약정서를 사무실로 제출 | | | |
| • 교무금 내실 때 월 표시, 이름, 신자번호를 기재 | | | |
| • 2023년 AA기금 약정도 사무실에 문의 | | | |
| • 온라인 봉헌시 이름, 신자 번호, 봉헌 내역 기재 | | | |
| • 생미사, 연령미사 봉헌은 우편으로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 |

| 전례 봉사 | | | |
|--------------------|-----------|--------------|----------------|
| 날짜 | 해설 | 독서 | 복사 |
| 4/20(토) 오후5:30 | 이성규 | 박주현 이상아 | 김주환 |
| 4/21(일) 오전8:00 | 서정원 | 김대용 김월수 | 박채효 김아론 |
| 4/21(일) 오전10:00 | 박미쉘 | 고근배 고숙영 | 이주현 김서윤 안성준 |
| 4/21(일) 오후11:45 | Derek Lee | 김소현 김대용모세 | 박시은 양태인 하혜지 |
| 4/27(토) 오후5:30 | 이익준 | 박민재 김주환 | 이성규 |
| 4/28(일) 오전8:00 | 김선민 | 최인영 남송은 | 박시현 전지우 |
| 4/28(일) 오전10:00 | 이경환 | 박성미 김연주 | 양다원 안성우 이제후 |
| 4/28(일) 오후11:45 | 김태훈 | 최예은 정범진 | 양다해 홍지아 한예성 |

| 본당 캘린더 | | | |
|--------|--|------------|--|
| 4월 28일 | | • 뉴난 공소 미사 | |

성모의 밤 행사

- 일시: 5월4일 (토) 청념미사 후
- 장소: 성모동산
- 행사때 발표할 신앙수기 및 봉헌시 모집
- 문의: 김용준 로마노 770-895-1000

도서(영성/일반/아동)현책 및 새책 판매

- 일시: 5월 5일 (일)
- 장소: 친교실

2차 혼금

- Catholic Home Mission
• 4월27일(토)/4월28일(일)

망치회 김밥,컵라면 판매

- 일시: 4월 21일(일) | 장소: 친교실
- 문의: 원동훈 770 910-5656

빛과 소금 4월 정기 모임

- 일시: 4월 21일 (일) 1:30pm
- 장소: Peachtree Corners Playground
5140 Town Center Blvd, Peachtree Corners, GA 30092
- 문의: 최남주 베드로 248-761-2693

새신자 환영책자 광고현장

- 광고비: \$150 / 2 Year
- 접수 마감: 선착순 20 회사
- Payable to "KMCC"
- Memo: 새신자 환영책자
- 문의: 김용준 로마노 770-895-1000
- 광고파일: mymohan@gmail.com

피에타 성가대원 모집안내

- 하느님 찬미를 기본 마음으로 함께 할 성가대원
알토, 테너,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이정란 안젤라 770-401-5375

2024년 매일 미사책 신청

- 일시: 일요일 미사후 | 장소: 친교실
- 1년 구독료 : 90불
- 문의: 사무실 770-455-1380

본당 알림